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9년 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7시		
장소	공동육아 회의실		
주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석	인원 : 14명 (참석 8명, 위임 6명)	참석	위임
	정병호 (공동대표/이사장)	○	
	양용준 (공동대표/이사)	○	
	이말순 (공동대표/이사)	○	
	황윤옥 (공동대표/이사)		○
	김미애 (이사)	○	
	박진희 (이사)		○
	서의철 (이사)	○	
	오세천 (이사)		○
	이경란 (이사/사무총장)	○	
	이기범 (이사)		○
	이부미 (이사)		○
	이송지 (이사)	○	
	이주영 (이사)	○	
	박영열 (운영위원장/이사)		○
	참관 : 윤영환 (감사)		
참관 : 정유천 (감사)			
간사 : 정영화 (연합회팀장)			
안건	1. 공동육아운동 실행체계 정비 토론회 개최의 건 2. 2019년 사업예산 변경 3. 신길햇살아이파크어린이집 예산(안) 승인 4. 기타		
보고	1. 2019년 상반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업 보고 2. 2019년 상반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업 결산 보고		

■ 전차 회의록 승인

- 현장학교 : 서울시청 옆, 용산-영등포-종로 등지에서 교육장소 찾아보기. 교육장 접근성 고려하기.
- 사무국 규정 개정에 동의함
- 문서화 작업 : 외장하드&클라우드 백업 이중화 명시하기. 사무국 직원 변경이 있을 때 자료 유실 우려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보고

1. 2019년도 상반기 사업보고/ 결산보고

- 보육노동자한마당
 - 같이 한다는 것은 절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한 집단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 처음 기획회의에 참여할 때부터 반영시킬 부분을 가져가서 대표성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자. 우리는 연대행사이고, 그쪽은 주최행사인데 점점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
 - 이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모임 필요하겠다.
- <한국 협동조합 100년사>에 공동육아협동조합 의미를 정리해서 삽입했다. 앞으로 중요한 원자료가 될 것이다. 그간 시민운동사, 공적 기록에 공동육아가 빠져 있었는데 큰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 헌법 소책자를 활용한 교육
 - 소책자를 발간하여 교육하고 있다. 조합원/교사 교육으로 2시간이면 할 수 있다. 같이 읽기 1시간 +균등 개념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헌법에 대한 기본개념 갖게 해주는 게 민주시민교육에 중요하다.
 - 예전에 교사대회에서 한국사 강의 호응이 좋았다. 교사대회에서 하면 좋겠다.

2. 법인 사무국 이전

- 12월 8일 이사 예정

➔ 사업 보고 승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심의

안건 1. 공동육아운동 실행체계 정비 토론회 개최의 건

- 통합사무국의 운영, 새로운 사무총장의 역할 정리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동육아 운동 실행체계의 정비에 대해 토론회 개최 제안
 - 중장기워크숍에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발견했다.
 - 최초 황윤옥 이사의 제안은 공식회의보다는 1박2일 정도 개인적으로 소회도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워크숍 모임이었다.
 - 참석 범위는?
 -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 많이 참여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원이 아니어도 공동육아운동에 참여해서 애정을 가졌던 분, 역대 운영위원장 중에 공식 직책을 안가진 분들, 사무총장 후보자 등 '공동육아 앞날을 함께 생각하는 모임'으로 하자.

- ➔ 공동육아운동 실행체계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10월 26일(토), 11월 2일(토) 중에 설문하여 결정한다.
- ➔ 참여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뿐 아니라 참여해서 애정을 가졌던 분들, 사무총장 후보자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자.

안건 2. 2019년 사업 예산 변경

- 청년동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서울시육아공동체지원사업,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사업, 서울시평생교육시민제안사업, 육아정책연구소 협동조합 유치원 연구비, 볼로냐 카디아가 국제포럼 공동주관 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 변경 필요함
 - 창업지원사업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가?
 - 계속 할 수 있다.
 - 국제포럼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
 - 아동돌봄 파트너가 인천 협동조합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 정책 제안을 하실 예정이다. 우리의 운영 방식이 가치경영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힘들다는 얘기에 의미가 가려져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
 - 포럼 내용 발표가 각 현장에 어떤 메시지 주는지 회비, 인터넷 등에 특별 메시지로 구성해서 보내면 좋겠다. 우리의 가치경영적 의미 소개, 제안, 해외 참가자에게 지지 받았다. 지자체 요구사항 등 명문화해서 회원들과 공유하자.
 - 공동육아 뉴스레터, 회보, 총회 자료에 선정된 사업을 반짝반짝 넣어서 애쓰신 분들을 소개하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짧게라도 알렸으면 한다.
 - 연말에 성과급 줄 수 없나?
 - 총회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인센티브 5% 주면서 개인 2.5%와 공동기금 2.5%로 한다면 어떨까.

- 교수는 외부 프로젝트 따오면 3%를 연구보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자기개발, 연구역량 개발 등 연구역량 강화비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예산 변경을 승인한다.

- ➔ 공동육아 운영방식의 가치 경영적 의미 등에 대해 프로젝트사업, 포럼 등으로 정리하고 홍보하고 있음을 뉴스레터, 회보, 총회 자료 등에 소개하고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알리자.

안건 3. 영등포구립 신길햇살아이파크어린이집 예산(안) 승인

- 신길햇살아이파크어린이집은 7월 중간 개원이라서 원아모집이 정원을 못 채웠고,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올해는 교육 지원 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개원하는 어린이집치고 행사비가 많아 보이니 줄이는 게 어떨까. 영아중심 구성은 잘한 것 같다. 경력에 비해 원장 급여가 낮으니 힘이 안날 수도 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연구모임에서 컨설팅 하고 있다.
- 원장 급여 체계에 대해서 연합회 등을 통해 어필하자.
- 개원시기가 안맞아서 총원이 안된 경우는 위탁체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한가?
-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 신청할 때 적자가 나면 위탁체가 책임지겠다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NGO의 공익후원사업이라는 점을 부모님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 구립어린이집, 기관회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초기역경이 노하우이므로 이 사례를 정리해서 내규를 만들자. 시작은 어렵기 마련이다. 법인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자. 적자가 나면 보전해주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을 위한 시스템, 내규를 마련하자.

- ➔ 신길햇살아이파크어린이집의 2019년 예산안을 승인한다. 우리 법인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자.

안건 4. 기타 안건

- 협동조합 유치원 회원 가입과 지원에 대하여 : 이송지 이사
 - 내년 3월 동탄유치원이 개원할 예정이고 공동육아 회원 가입 문의를 해왔다. 70가구 조합부회비를 부담스러워한다. 최초 협동조합 유치원이고 개원 후 1년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지원해줄 것인가? 유치원 교사가 현장학교 수강하기 쉽지 않다. 유치원 현장학교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정비가 필요하다. 경력 20년 된 분이 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어린이집하고 운영형태는 동일하다. 오늘 논의할 것은 아난데 이사회, 사무국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 원장 내정자는 뿌리와새싹어린이집 시작할 때 설립추진위원회 마련했던 것처럼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 조합형 어린이집처럼 받을 수 있을까.
 -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 한시적으로 안받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애기가 있을 것이므로 묘책이 필요하다.
 - 사무국에서 지원체계, 교육체계, 회비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회 보고 드리겠다.
 - 이런 식이 많이 일어난다면 대책 세워야하지만 하나 정도 생기고 끝날 수도 있다. 많이 생기면 별도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데 한 두 개면 별도로 꾸리기 어렵다.
 - 지원방안, 교육과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한다. 부모 참여도 따로 꾸려줘야 한다. 똑같은 요구가 아닐 것이다.
 - 한 개라도 투자해서 꾸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협동조합으로 가능성도 있다.
 - 논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집 조합 회원들이 알면 이쪽만 기관회원인가 문제제기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라면 차별이 되버린다.
 - 건설당단에서 많이 애쓰셨다.
- 방정환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제안 : 이주영 이사
 - 1923. 5. 2. 어린이날, 어린이 해방선언한 날. 김기식 선생. 방정환 100주년 때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새천년어린이선언 평화선언을 했다. 그동안 소원했었는데 올해 연말 정도에 방정환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을 따오는게 필요하다. 도종환 의원이 같이 하겠다고 한다. 2023년에 어린이 문화연대, 방정환재단, 어깨동무, 공동육아,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이 기본이 되어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를 해보자. 3년 후에 국가사업이 될 수 있게 하자. (제네바어린이선언이 1924년)
 - 역사성이 있으니 같이 추진하자. 12월 이사회에 자료 내서 결의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자. 남, 북, 난민 어린이 등 국제 연대할 수도 있겠다.
 - 이를 계기로 자매단체들이 함께하는 사업 할 수도 있겠다.

→ 자매단체들과 함께 방정환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 차기 회의 날짜

- 12월 7일(토) 오전 11시-1시 이사회 진행/ 2시-5시30분 100인 토론회
- 12월 이사회에서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위촉 예정